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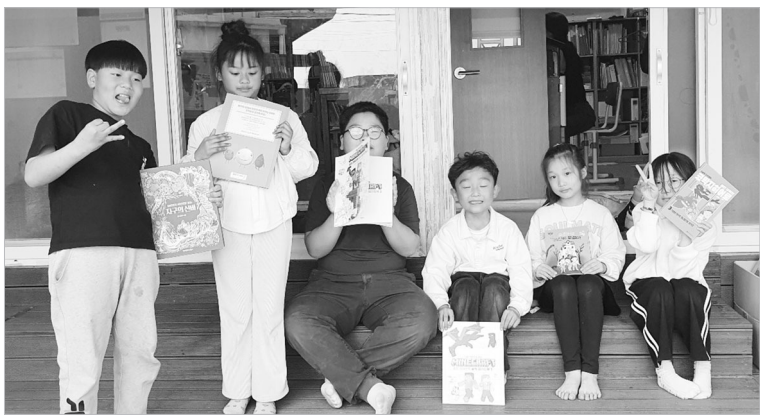
호남대-전주국제영화제, 인재양성 협약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는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준호·민성욱 공동 집행위원장이 참석해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은 물론, 호남대 학생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 및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청년 영상 인재 양성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독서 취약지역 책 기증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독서문화취약지역 11개 기관에 4,5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이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증 대상은 지자체나 기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도서관과 취약기관이다.

도서가 전달된 곳은 여수수 다북센터, 여문지역아동센터 △강진 풍성한지역아동센터 △무안 책속의길작은도서관, 희망주는작은도서관 △구례 호호담작은도서관, 흥당무작은도서관 △광양 세풍지역아동센터 등 총 11곳이다.

이들 기관은 방과후 학생 돌봄은 물론, 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표 진도 맹골곶도마을문고 대표는 “곽도는 맹골군도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섬으로, 마을문고는 섬 주민들에게 유일한 독서공간”이라며 “이번 도서 기증을 통해 섬마을의 독서 환경이 개선되고 문화 향유의 기회까지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길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도서 기증에 협조해 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민 누구나 책을 가까이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별 독서·인문교육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북부소방, 주택소방시설 설치단 간담회

광주 북부소방서는 최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간제 근로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 응대 요령 △안전사고 교육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뤄졌다.

인사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광주본부장 김창용

조선대학교 ◇3급 승진 △총무관리처장 김영목 △정보전산원 정보개발팀장 김성주

◇4급 승진 △총무관리처 기계전기팀장 박영태 △취업학생처 학생복지팀장 박지현 △사범대학 교학팀장 조은미

◇5급 승진 △대의협력처 국제협력팀 강하리 △의과대학 교학팀 기빛나 △입학처 입학관리팀 운영실 △취업학생처 일자리지원팀 최화영

◇6급 승진 △대의협력처 홍보팀 강민욱 △SW중심대학사업단 고재룡 △미술대학 교학팀 서지혜 △대학원 교학팀 윤소현 △교무처 창의융합교육단 E-Learning지원팀 김지영

곽형수 남포미술관장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선정

폐교 부지 학교 리모델링 2005년 남포미술관 개관 수준 높은 전시 기획 공로 12일 박물관인대회 시상

곽형수 고흥 남포미술관장이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7일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을 비롯해 안휘준 서울대 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윤열수 가회문화

박물관장, 조명행 영월아프리카미술박물관장, 성재정 미리벌민속박물관 명예관장이 올해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곽형수 관장은 2005년 전시와 공연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남포미술관을 개관해 고흥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썼다.

선전의 유지를 받들어 운영하던 고흥 영남중학교가 폐교되자 관장은 학교를 리모델링해 미술관으로 개관했고 수준 높은 전시 기획과 지역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공로

를 인정받았다.

우수한 활동을 펼친 박물관·미술관에 수여하는 ‘올해의박물관·미술관상’에는 총 5곳이 뽑혔다.

기획 전시 부문에서는 대구간송미술관과 코리아나화장박물관이, 교육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경기도자박물관과 토지주택박물관이 각각 선정됐다.

송파책박물관은 출판물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전남여상, 졸업생 선배들과 대화 호평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최규명)가 지난 3일 재학생을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2011년 이후 매년 이어져 온 대표 진로 행사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이 참여해 취업 노하우와 직장생활 경험을 들려준다.

선배와 대화는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다. 행정직·세무직 9급 공무원, 한국은행·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대·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선배

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재학생들은 ‘선취업 후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해온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매년 전남여상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에 진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여상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빛고를 혁신학교 등 분야에 지원 받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



과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에 합격자를 배출하는 취업 사관학교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규명 교장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서로 경험과 에너지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생들이 취업, 진학 등 어떤 길을 선택하든 든든히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박옥수 목사 초청 광주 성경세미나 성황

박옥수 목사 초청 광주 성경세미나가 마무리 됐다.

한국기독교연합(KCA) 주최, 기쁜소식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4~6일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루 2회 진행됐다.

박 목사는 ‘죄에서 벗어나’를 주제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등을 설교했다.

새소리 어린이합창단 공연에 이어 캔들스틱 특별공연, 그라시아합창단 공연 등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2025광주전남리더스포럼이 개최됐으

며 지역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6일엔 박옥수 목사 초청 ‘마태복음 강해’ 출간기념회가 열렸다.

그라시아합창단 부활절콘서트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성경세미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전환점을 제시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 섬세하게 조명했다는 평가다.

한편 대전을 시작으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인천(11~13일), 대구(14~16일), 서울(27~29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유튜브 채널 ‘GoodNewsTV’·



‘GoodNewsTV global’을 통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국어 등 6개 언어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최진화 기자



광주여대-광주 야호 센터, 사피엔스 발대식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최근 광주 야호 센터(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사피엔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야호 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인문사유 예술 경험 특화센터’로 지난 2016년 광산구 월곡동에 문을 열었다.

현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건강한 심신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협약식과 발대식에는 광주여대 상담심

리학과 오승진 교수와 학생들, 광주 야호 센터 정순례 센터장과 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봉사 및 자원인력제공,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활동에 광주여대 상담심리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사피엔스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 개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8명이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최환준 기자



평동농협, 고령농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

평동농협은 최근 평동농협 본점에서 지역 주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령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동농협은 점포 내에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전달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법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평동농협은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 고령층이 금융사기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삼규 조합장은 “평동농협이 지역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신뢰였다”며 “지역민과 농업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